

【일반논문】

북한의 당군관계 형성과 김일성지도체제의 맹아

6·25전쟁 직전 당군관계를 중심으로

김선호 (한양대학교)

국문요약

북한정치세력은 해방 직후에 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해 소비에트국가가 아니라 인민공화국 건설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민족 전체의 통일전선을 추구했다. 노동당은 통일전선을 관철하여 인민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군대의 당군화를 추진하지 않고 전체 인민의 군대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대신해 노동당은 군관학교·비행사단·신편부대·검찰기관·재판기관에 당단체를 조직함으로써 군대에 대한 당적 통제와 지도를 관철시켰다.

6·25전쟁 직전 당군관계는 사회주의국가 건설과정에서 김일성의 지도체제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인민군에는 당과 정권기관에 비해 동북항일연군 출신의 정치·군사적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었고, 이로 인해 김일성의 영도사상과 혁명전통도 일찍부터 구축되었다. 인민군의 역사적 기원과 정통성은 전체 항일운동이 아니라 김일성의 항일운동과 빨치산부대에 부여되었다. 인민군에서 항일연군 출신들의 우월적 지위와 김일성 중심의 창군이념은 향후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김일성의 지도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맹아였다.

6·25전쟁 직전까지 노동당 내부에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존하고 있었고, 김일성의 영도사상과 혁명전통이 확고히 자리잡지 못했다. 이와 달리 인민군에서는 김일성의 영도사상과 혁명전통이 공식적이며 유일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군에 구축된 김일성의 영도사상과 혁명전통을 당과 정권기관에 관철하는 방식으로 김일성지도체제를 구축하였다. 결국 조선로동당이 선군정치를 추구한 것은 인민군이 수령의 영도사상과 혁명전통의 기원과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주제어: 조선인민군, 조선노동당, 인민민주주의혁명, 통일전선, 군사단일제, 문화간부, 혁명전통, 영도사상, 선군정치

I. 머리말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선군정치(先軍政治)’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운영방식을 추진했다. 이 선군정치는 김정일 최고사령관이 1995년 1월 1일에 평양시 인근의 제214군부대(방공포부대)를 현지지도하면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¹⁾ 선군정치는 인민군을 본보기이자 핵심으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함으로써 대내외적 위기를 돌파하고 사회주의를 보위·건설하겠다는 구상이었다.²⁾ 이 선군정치의 근본사상이 선군사상이다. 선군사상은 “군사를 모든 것에 앞세울 데 대한 군사선행의 사상이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할 데 대한 선군후로(先軍後勞)의 로선과 전략전술”이다.³⁾

북한은 전통적으로 당의 정치적 우위를 전제로 당=국가체제로서 노동당이 국가기관을 영도한다. 선군정치에서도 당군관계는 명백히 당우위의 원칙을 전제한다. 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당규약에 여전히 ‘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규정되어 있다.⁴⁾ 그런데 선군정치는 당을 앞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군대를 앞세우는 방식이다. 북한지도부가 군대를 ‘혁명의

1) 김봉호, 『위대한 선군시대』 (평양: 평양출판사, 2004), p. 6.

2) 서동명,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위업승리의 위력한 담보』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p. 1.

3) 『로동신문』, 2003년 3월 21일.

4)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6권 2호 (2002), pp. 353~356.

기둥'이자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위기 돌파와 사회주의 건설의 핵심으로 설정한 것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당군관계 속에서 인민군이 담당해온 역할과 관련이 깊다. 그 중에서도 특히 6·25전쟁 직전까지 형성된 당군관계에는 당=국가체제 속에서 인민군이 차지하는 본질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북한의 당·군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그 역사적 중요성 만큼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⁵⁾ 선행연구는 대체로 6·25전쟁 직전까지 북한의 당과 군대가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인민군이 '당의 군대'인지, '통일전선의 군대'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첫째, 인민군은 당의 군대가 아니었으며, 당·인민위원회·정부의 밖에서 자율적 존재로 창설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⁶⁾ 둘째, 인민군은 당의 군대이자 통일전선의 군대였으며, 본질적으로는 김일성(金日成)의 군대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⁷⁾ 셋째, 인민군이 당의 군대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철저히 당과 연결되어 있었고 당의 통제를 받았다고 보는

5) 현재까지 제출된 당·군관계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Suck-Ho Lee, *Party-Military Relations in North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83);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 (서울: 나남, 1996), pp. 731~732; 서동만,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한국전쟁 이후부터에서 1961년 전후 시기까지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6호 (1996), pp. 159~193; 서동만,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창군기에서 한국전쟁 직전까지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 제3호 (1998), pp. 267~269;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군사』 (서울: 경인문화사, 2006), pp. 7~84; 차두현, “북한 당·군관계의 변화과정: 변화의 동인과 그 의미,” (연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장성진, “북한군 창설기 당-군관계의 형성과 의미,” 『현대북한연구』, 제15권 3호 (2012), pp. 146~202; 김보미, “북한의 당군관계, 그 결과,” 『현대북한연구』, 제20권 3호 (2017), pp. 99~137; 김선호, “북한의 당군관계 출현과 통일전선의 군대,” 『현대북한연구』, 제21권 2호 (2018), pp. 7~47.

6)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서울: 선인, 2005), pp. 271~279.

7) 장성진, “북한군 창설기 당-군관계의 형성과 의미,” pp. 175~183.

견해가 있다.⁸⁾

이 논쟁의 중심에는 6·25전쟁 직전에 노동당의 군대 장악 여부와 인민군의 당단체 조직 여부가 놓여있다. 일부 선행연구는 군대에 당단체가 조직되어 있지 않았으며, 인민군이 당의 영도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통일전선의 군대였다고 평가했다.⁹⁾ 다른 선행연구는 군관학교와 일부 부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인민군에 당단체가 없었고 단일지휘체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간부에 대한 당의 통제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¹⁰⁾ 이상의 논쟁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6·25전쟁 직전 인민군에 실제로 당단체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리고 노동당이 그들의 혁명론에 따라 군대를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6·25전쟁 직전에 형성된 북한의 당군관계를 새로운 자료를 통해 해명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인민군에 조직된 당단체의 구체적인 현황과 의미를 확인함으로써 6·25전쟁 직전에 형성된 당군관계를 해명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소련군·중국군과 비교를 통해 인민군의 정치·군사적 성격을 분석하고, 이것이 김일성지도체제와 갖는 의미를 해명할 것이다. 이 글은 이상의 문제의식을 해명하기 위해 주로 기존에 발간되거나 새롭게 발굴한 미군 노획문서(鹵獲文書, Records Seized by U.S. Military Forces in Korea)를 활용하였다.

8)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 pp. 731~732.

9) 백학순, “당·정·군 관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당·국가 기구·군대』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pp. 42~43.

10) 백학순, 『북한정치에서의 군대: 성격·위상·역할』 (성남: 세종연구소, 2011), pp. 12~13; 정성장,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과 권력승계 문제』 (성남: 세종연구소, 2013), p. 13.

II. 조선인민군의 당단체 조직 현황과 그 의미

1. 조선인민군의 당단체 조직 현황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군대는 당의 군대로 규정된다. 소련 적군(Красная Армия)은 소련공산당의 군대였으며, 중국 홍군(紅軍)은 중국공산당의 군대였다. 소련공산당과 중국공산당은 군대를 총괄하는 군사담당기구(소련공산당 정치국과 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군대에는 공산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정치지도기관(소련 적군 총정치국과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가 설치되었고, 부대에는 군사지휘관과 함께 정치지휘관(군사위원과 정치위원)이 별도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인민군은 소련 적군이나 중국 홍군과 달리 당의 군대로 창설되지 않았다.

북조선로동당이 당군관계를 처음 결정한 시기는 1946년 10월 21일이다. 이날 당중앙상무위원회는 「군대내 당조직에 관하여」라는 결정을 통해 보안간부훈련소와 철도경비대 등 보안무력에 “각 정당 조직을 두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군대의 성격에 대한 규정과 당조직을 설립하지 않는 이유다. 로동당은 군대를 “북조선 인민의 민주개혁을 보장하는 전 인민의 군대”로 규정하였다. 당단체를 설립하지 않는 이유는 “군대의 당군화(黨軍化)를 방지하고 군대의 통일적 통솔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¹¹⁾ 이 결정에 따라 군대에는 로동당은 물론, 민주당과 청우당의 당단체도 설립되지 않았다. 조선인민군과 달리 소련 적군과 중국 홍군에는 공산당의 당단체가 조직되었으며, 다른 정당

11) “군대내 당조직에 대하여(1946. 10. 21),”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30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8), p. 37.

의 당단체는 조직되지 않았다.

북한정치세력이 군대에 당단체를 결성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의 국가건설 방향 때문이다. 김일성은 1945년 10월 13일에 서북5도당 책임자 급(及) 당열성자대회에서 ‘금일 우리 과업은 쏘베트 국가 건설이 아니라 인민공화국 건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무산계급뿐만 아니라 자본가·지주 등 전체 민족이 다 같이 단결해 통일전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¹²⁾ 북한정치세력은 해방 직후에 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해 소비에트국가가 아니라 인민공화국 건설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민족 전체의 통일전선을 추구했다.¹³⁾ 노동당은 통일전선을 관철하여 인민민주주의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군대의 당군화를 추진하지 않고 전체 인민의 군대를 창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¹⁴⁾

군대의 당단체는 1948년 2월 8일에 인민군이 창설된 이후에도 공식적

12) 金日成 將軍 述, 『民族大同團結에 對하여』 (청진: 朝鮮共產黨淸津市委員會, 1946. 3), p. 10, NARA, RG 242, SA 2010, Box 5, Item 141.

13) 통일전선은 “일정한 투쟁대상에 대하여 공통한 이해관계를 가진 계급 또는 단체들의 동맹관계”를 의미한다. 『근로자』 1947년 1·2월호,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42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4), p. 252.

14) 소비에트국가는 노동계급의 독재를 통해 사회주의적 과업을 수행하며, 인민민주주의국가는 노동계급의 영도 아래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을 통해 처음에는 반제반봉건의 과업을 수행하고 다음에는 사회주의적 과업을 수행한다.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p. 215. 북조선로동당은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추진하면서 반소(反蘇)·반공(反共)세력, 지주·부르주아계급 등을 반혁명세력으로 규정해 통일전선에서 배제했으며, 노동자·농민·사무원을 목적의식적으로 인입하였다. 그 결과 해방 직후 민족 중심의 통일전선은 계급 중심의 통일전선으로 전환되었다. 해방 이후 북한의 통일전선 재편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 바람. 김광운, “해방 직후 북한에서의 통일전선,” 『한국사학보』, 제11호 (2001), pp. 319~348; 김선호, “한국전쟁 직전 조선인민군의 인적 구성과 북한의 통일전선 재편,” 『역사문제연구』, 제41호 (2019. 4), pp. 365~373.

으로 설치되지 않았다. 창설 이후 인민군 내에 당단체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1949년 당시 민족보위성 정치보위부 장교였던 최태환이 증언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민군 내에는 조선민주당과 조선로동당의 당원 등이 있었는데, 그들이 인민군에 입대하게 되면 당원증을 문화부에 반납하게 되어 있었다. 보안간부훈련대대부와 민족보위성에서는 당원활동이나 당조직 생활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¹⁵⁾

지금까지 인민군의 당단체는 6·25전쟁 당시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⁶⁾ 실제로 조선로동당 중앙정치위원회는 공식적으로 1950년 10월 21일에 인민군 내에 당단체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인민군의 당단체는 당중앙위원회가 11월 29일에 「조선인민군내 당단체사업 규정」을 승인함으로써 연대당위원회, 대대(초급)당위원회, 중대당세포가 조직되었다.¹⁷⁾ 인민군의 당단체는 6·25전쟁 직전까지 극히 일부 기관에만 조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6·25전쟁 직전에 인민군 내부에는 당단체가 보다 광범위하게 조직되어 있었다.

15) 한상구, “팔로군 출신 방호산사단 정치보위부 최태환의 증언,” 『역사비평』, 1988년 가을호 (1988), p. 375.

16) 6·25전쟁 당시 인민군 총정치국과 당단체의 조직과정은 다음 연구를 참고 바람. 서동만,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한국전쟁 이후부터에서 1961년 전후 시기까지를 중심으로,” pp. 161~167; 정성장,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과 권력승계 문제』, pp. 17~18; 이대근, 『북한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p. 54; 고재홍, “6·25전쟁기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 『軍史』, 제53호 (2004), p. 154; 이신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설치 배경에 대한 연구,” 『軍史』, 제83호 (2012), pp. 51~53.

17)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조선인민군내 당단체사업 규정(1950. 11. 29),” 김창순 편, 『北韓軍事論』 (서울: 북한연구소, 1978), pp. 527~531; 김일성, “인민군대 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마련할 데 대하여(1950. 10. 21),” 『김일성저작집』 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145~152. 이때 조선로동당의 당단체는 군대에 설치되었지만, 조선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의 당단체는 군대에 설치되지 않았다.

북조선로동당은 1946년 10월 21일 중앙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안무력에 당단체를 조직하지 않았는데, 군사학교에는 예외적으로 당단체를 조직했다. 중앙상무위원회는 1946년 10월 8일에 중앙본부 직속으로 평양학원과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에 당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위원장은 각 학교의 정치부교장이 맡고, 교내 당위원회는 당규약상의 시·군당위원회와 동급 당부로 인정했다.¹⁸⁾ 이 결정은 북조선로동당 중앙이 군사학교를 직접 장악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시·군당위원회와 동급 당위원회로 인정한 것은 군사학교 당단체의 위상을 높여 지방당의 지휘와 간섭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노동당은 군사학교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와 기관에 당단체를 조직했다. 6·25전쟁 직전에 당단체가 조직된 부대와 기관을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1950년 2월 25일자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조직부 지시문이다. 당중앙본부 조직부는 이 지시문에 앞서 2월 18일자 지시문을 통해 “각 도·시(구역)·군당부 조직부장 강습을 3월 7일 10시부터 4일간 시작”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당중앙본부 조직부장 대리 서용선은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장 김일(金一)에게 “다음 동무들을 본 강습에 참가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조직부장 강습에 참가할 인민군의 문화간부는 다음과 같다.

18) “평양학원 및 보안간부학교내 당조직에 대하여(1946. 10. 8),”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30권, p. 13.

〈표 1〉 조선인민군 부대·학교·훈련소의 문화간부 명단
(1950년 2월 25일 현재)¹⁹⁾

번호	이름	직책	번호	이름	직책
1	한창근		13	유진화	자동차기술훈련소 당위원장
2	최승현		14	신남용	해군기술훈련소 당위원장
3	최길용		15	조정서	독립경찰대대 당위원장
4	신성택	五사 당위원장	16	김규원	제一사 당지도원
5	신정규	六사 당위원장	17	김재련	제二사 당지도원
6	김경모	정치학교 당위원장	18	공달성	제三사 당지도원
7	김도영	一군관학교 당위원장	19	장익진	제四사 당지도원
8	주종빈	三군관학교 당위원장	20	리향실	해군사령부 당지도원
9	동기훈	해군군관학교 당위원장	21		땅크려단 문화책임자
10	임생락	항공교도련대 당위원장	22		항공사단 문화책임자
11	엄수춘	땅크교도련대 당위원장	23		직속 문화부 문화책임자
12	리정렬	포병기술훈련소 당위원장	합계		23명

문화간부의 소속 부대와 기관은 크게 군부대, 군사학교, 기술훈련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에서 “당위원회”가 조직되어 당위원장이 강습에 참석하는 단위는 제5·6보병사단, 항공교도연대, 땅크교도연대, 독립경찰대대, 정치학교, 제1군관학교, 제3군관학교, 해군군관학교, 포병기술훈련소, 해군기술훈련소, 자동차기술훈련소 등 12개 단위다. 당지도원이 강습에 참석하는 단위는 제1·2·3·4보병사단과 해군사령부다. 문화책임자가 강습에 참석하는 단위는 땅크여단, 항공사단, 민족보위성 직속 문

¹⁹⁾ 표의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당중앙본부 조직부장 대 서용선, “조직부 지시문, No.00354(1950. 2. 25),”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조직부,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조직부 지시문철(自 一九四六.九)』 (평양: 북조선로동당, 1950), NARA, RG 242, ATIS Document, No. 201205(이하 『조직부 지시문철』).

화부다. “문화책임자”라는 직책은 각 단위부대에 조직된 문화부의 책임자를 뜻한다. 예를 들어 사단의 문화책임자는 문화부사단장, 여단의 문화책임자는 문화부여단장이다. “당지도원”은 사단급 이상의 부대에 배치된 문화부원이다. 사단 문화부에는 문화부사단장 밑에 당지도원(중성1)이 배치되었다. 당지도원은 “문화부사단장의 지도를 받아 연대내의 부대와 구분대의 지도검열사업”을 담당했다.²⁰⁾

그렇다면 명확히 당단체가 조직된 부대와 기관은 제5·6보병사단, 항공교도연대, 땅크교도연대, 독립정찰대대, 정치학교, 제1군관학교, 제3군관학교, 해군군관학교, 포병기술훈련소, 해군기술훈련소, 자동차기술훈련소 등 12개 단위다. 이중 정치학교의 정식 명칭은 “조선인민군 제2중앙정치학교”로, 평양학원 정치과의 후신이다.²¹⁾ 1군관학교는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의 후신이다. 중앙보안간부학교는 1948년 12월 초에 평양시 사동으로 이전하여 조선인민군 제1중앙군관학교로 개편되었다.²²⁾ 3군관학교는 1949년 4월에 신설된 조선인민군 제3군관학교를 뜻하며, 독립정찰대대는 1949년 5월 16일에 제105탱크여단과 함께 새로 편성된 제303기동정찰대대(모터싸이클부대)를 뜻한다.²³⁾ 포병기술훈련소는 1946년도에 “병기기술일군 양성”을 위해 설치한 “첫 군사교육기관”이었다.²⁴⁾ 해군기술훈련소와 자동차기술훈련소는 각각 해군과 자동차에 관한 기술병을

20)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추정), 『軍衆工作』 (평양: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50. 8. 5), NARA, RG 242, SA 2009, Box 4, Item 149.

21) 이 사실은 평양학원 정치과 졸업생의 『자서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정환은 1950년 2월에 쓴 『자서전』에 자신이 다닌 평양학원 정치과를 “현재 조선인민군 제2정치학교”라고 기록하고 있다. 정정환, 『자서전』 (평양: 제17포병연대, 1950. 2. 11), NARA, RG 242, SA 2009, Box 10, Item 21.14.

22) 佐佐木春隆, 『韓國戰秘史』 中卷 (서울: 兵學社, 1977), p. 28.

23) 장준익, 『北韓人民軍隊史』 (서울: 瑞文堂, 1991), pp. 125~126.

24)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4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1), p. 276.

양성하는 군사교육기관이었다.

당단체가 조직된 단위를 성격별로 구분해 보면, 육군 보병부대(제5·6 보병사단), 비행사단(항공교도연대), 제105탱크여단(땅크교도연대), 독립정찰대대, 군관학교(제1중앙정치학교, 제1·3군관학교, 해군군관학교), 군사교육기관(포병·해군·자동차기술훈련소)이다. 이중 군관학교는 1948년 2월 인민군 창설 이전부터 당단체가 조직되어 있었다. 군관학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와 기관은 모두 1948년 9월 9일 정부수립 이후에 조직된 신편부대들이다. 특히 육군 보병부대와 독립정찰대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와 기관들은 군관과 기술병을 양성하는 단위였다. 북조선로동당은 신편부대와 군관·기술병을 양성하는 부대·기관을 중시해 이들 기관에 당단체를 조직함으로써 당의 정책을 집행하고 당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인민군의 부대·군관학교·기술훈련소 뿐만 아니라 6·25전쟁 직전에 인민군의 또 다른 기관에 당단체가 조직되었다.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부위원장 허가이(許哥而)는 1950년 4월 30일에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김일, 내무성 문화국 김한중, 각 도당부 위원장”에게 공동으로 한통의 지시문을 하달했다. 지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민군대내 검찰기관 및 재판기관들에 당조직 구성과 그 당단체를 지도함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인민군 검찰국 및 산하 검찰소와 인민군 중앙재판소 및 산하 재판소들에 당구역에 근거하여 당조직을 둔다. 인민군 검찰기관 및 재판기관내 당단체의 지도는 다음과 같다. 인민군 검찰국 당원들은 공화국 최고검찰소 당단체에 소속시키며, 인민군 중앙재판소내 당원들은 최고재판소 당단체에 소속시킨다. 인민군 각 사단 검찰소 및 재판소내 당세포에 소속한 당원의 당생활에 대한 지도는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제2부와 그 위임에 의하여 사단 문화부사단장(해군기지는 문화부기지장)이 한다. 인민군 각 지방 검찰·재판기관내 당원들은 각 소재지 도내무부

당단체에 소속시킨다. 이상 당 조직 구성과 편성을 1950년 5월 10일까지 완결하고 조직경과를 당중앙본부에 보고할 것.²⁵⁾

북조선로동당은 1950년 4월 30일에 인민군의 검찰기관과 재판기관에 당단체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당단체의 상급기관은 세 종류였다. 검찰국과 중앙재판소 당단체는 내각 최고검찰소와 최고재판소 당단체 소속, 사단 검찰소·재판소 당세포는 문화훈련국 제2부 소속, 각 지방에 있는 인민군부대의 검찰·재판기관 당원들은 소재지 도내무부 당단체 소속이다. 이중에서 사단 검찰소·재판소 당세포에 대한 당적 지도는 문화훈련국 제2부의 위임을 받아 사단 문화부사단장과 해군기지 문화부기지장이 담당했다. 당단체를 각각 세개의 상급기관에 소속시킨 것은 인민군의 각 검찰·재판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고려한 조치였다. 노동당이 1950년 4월 말에 인민군의 검찰기관과 재판기관에 당단체를 조직한 것은 개전을 앞두고 인민군과 내무성군대의 정치사건·군사사건을 취급하는 이들 기관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2. 조선인민군의 당단체 조직 형태와 의미

이상에서 확인한 부대·기관에 실제로 당단체가 어떤 형태로 조직되었고, 당원들의 입당절차는 어떠한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자. 첫째, 비행사단에 조직된 당단체의 현황과 당원들의 입당절차는 다음과 같다. 1949년 12월 6일에 조선인민군 제866군부대 전사 김기복은 북조선로동당에 가입하기 위해 입당서류를 제출했다. 그가 입당청원서를 제출한 세포명은 “북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 제866군부대 기술대대 초

²⁵⁾ 당중앙본부 부위원장 허가이, “기요부 기사문, No.00698(1950. 4. 30),”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조직부, 『조직부 지시문철』.

급당부 제6분세포였다. 김기복이 제출한 서류는 입당청원서, 이력서, 2명의 입당보증서였다. 그에 대한 입당보증인은 2명이었는데, 모두 기술대대 초급당부 제6분세포 세포원이었다.²⁶⁾

“제866군부대”는 비행사단 습격기연대의 단대호(單隊號)다.²⁷⁾ 비행사단 습격기연대 기술대대에는 초급당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분세포가 조직되어 있었다. 앞의 사실과 종합해 보면, 1949년 7월경에 인민군 비행연대의 예하대대에는 당세포가 조직되었고, 12월경에 비행사단 습격기연대 기술대대에는 초급당위원회와 분세포가 조직되어 있었다. 따라서 민족보위성 직속 비행사단에는 모두 당단체가 조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인민해방군에서 인민군에 편입된 부대의 전당(轉黨) 절차와 당단체 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인민해방군 제4야전군 독립15사단은 1950년 4월 18일에 강원도 원산 갈마반도에 도착해 인민군 제12사단으로 재편되었다. 독립15사단에 있던 중국공산당원은 입북 직후에 조선로동당원으로 전당되었다. 민족보위상 최용건(崔庸健)과 총참모장 강건(姜健)은 1950년 5월 17일에 전당사업과 관련해 “이번에 중국공산당 당원을 북조선로동당 당원으로 전당시키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일에는 동원하지 말 것이며, 전당 등기사업은 6월 5일까지 완료”하라고 지시했다.²⁸⁾

26) 김기복, 『입당청원서』 (평양: 제866군부대, 1949. 12. 6), NARA, SA 2009, Box 2, Item 158.

27) 다음 명단에 지휘관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제866군부대 연대장은 최현옥, 문화부연대장은 정중우로 습격기연대 지휘관과 일치한다. 제866군부대 문화부연대장 정중우, “군관상학조 명단 제출에 대하여(1950. 1. 7),” 조선인민군 제861군부대 문화부, 『잡서류철』 (평양: 제861군부대, 1950. 5), NARA, RG 242, SA 2010, Box 미상, Item 74.

28) 민족보위상 최용건, 총참모장 강건, “명령-중공당원 전당을 위한 당문건 작성 등기원 동원보장에 대하여(1950. 5. 17),” 고려서림 편, 『北韓解放直後極秘資料』

이때는 이미 북조선로동당이 조선로동당으로 개편된 이후였지만, 공식적인 명령서에는 여전히 북조선로동당으로 기재하고 있다. 명령서를 보면, 전당사업은 이미 5월 17일 이전에 시작되었다. 원래 당사업은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의 담당업무다. 이 명령서 이전에 문화훈련국장 김일 명의로 전당사업 명령서가 하달되었을 것이다. 이 명령서는 그 후속조치로 인민군부대의 행정절차를 지시하고 있다.

제12사단은 민족보위성의 지시에 따라 중국공산당 당조직을 재편했다. 제12사단 문화부사단장 김강(金剛)은 5월 27일에 예하부대에 당간부를 새로 선출하라고 명령한다. 즉, “당성이 강하고 당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높은 사람으로 출신경력 등을 고려하여 한 부대에 한명 씩 당서기를 선발”하도록 했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부대당위원회의 당서기를 대신해 조선로동당 부대당위원회의 당서기를 선출하라는 지시다. 김강은 같은 지령에서 “중국공산당에서 로동당으로 전당하는 사업을 통하여 부대 내의 정확한 당원통계를 장악하고, 당원과 당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각 연대 및 독립대대에 당서기를 선정할 것”을 지시했다.²⁹⁾ 제12사단의 사단당위원회 위원은 사단장, 문화부사단장, 참모장 등 총 8명이 임명되었다. 8명의 위원 이외에 별도로 당위원장이 임명되었다.³⁰⁾

이상의 지령은 중국에서 입북한 조선인부대의 경우, 이미 부대 내에 중국공산당 체제의 당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조선로동당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독립15사단이 입북하여 인민군 제12사단으로 재편된 것이 1950년 3월 말이었으므로, 2개월 뒤에야 전당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3 (서울: 고려서림, 1998), p. 131.

29) 제825군부대 문화부 부대장 김강, “지령-련대 및 독립대대 당서기 선정에 대하여(1950. 5. 27),” 고려서림 편, 『北韓解放直後極秘資料』 3, p. 133.

30) 제825군부대, “1950년 6월 14일자 문화부대장의 지령(1950. 6. 14),” NARA, RG 242, SA 2012, Box 5,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p. 406에서 재인용.

다. 제12사단의 경우 부대 내에 ‘사단당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각 연대와 독립대대에는 당서기가 선정되었다.

이것은 비단 제12사단에만 국한된 사례가 아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모든 부대에는 당단체가 조직되어 있었으므로, 중국에서 입북한 조선인 부대에도 당단체가 있었다. 따라서 조선인부대가 인민군으로 전환된 제5사단(사단장 김창덕)·제6사단(사단장 방호산)·제4사단 제18연대(연대장 장교덕)·인민군 제17기계화사단·제584부대(인민군 철도병부대)에는 모두 제12사단과 동일한 사단당위원회와 연대·독립대대 당서기가 조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입북한 중국공산당 당원들에게 중국공산당 당적의 포기과 북조선로동당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었다.³¹⁾

조선인부대의 당원들이 전당한 시점과 전당 소속현황은 인민군 제6사단의 『로동당원명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명단 안에는 「중국에서 나온 당원명단(1949년 7월후)」이 들어있다. 이 명단에 있는 당원들은 “동북 리홍강지대”와 “제40야전군 제47군”에서 인민군에 편입된 병사들이다. 분대장 강규석은 “전 소속당부 명칭”이 “동북 리홍강지대 3대대 영당위”로, 이동년월일은 “1949년 7월 23일”로 기록되어 있다. 리홍광지대(李紅光支隊)는 ‘중국인민해방군 동북군구 제166사’의 전신이다. 제166사는 1949년 7월 23일에 입북해 인민군 제6사단으로 개편되었다. 즉 강규석은 입북과 동시에 ‘중국공산당’에서 ‘북조선로동당’으로 전당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공산당 당원들은 입북 직후에 조선로동당으로 전당 소속을 완료했다.³²⁾

이상에서 확인한 6·25전쟁 직전까지 당단체가 설치된 조선인민군의 부대와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한상구, “팔로군 출신 방호산사단 정치보위부 최태환의 증언,” p. 364.

32) 제1중대 문화부중대장 김철산, 『로동당원명단』 (미상: 제1중대, 1950. 8. 6),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9.2.

〈표 2〉 6·25전쟁 직전까지 당단체가 설치된 조선인민군의 부대·기관³³⁾

구분	부대·기관 명칭	당단체 설치 결정시기
보병부대	제4보병사단 제18연대, 제5보병사단, 제6보병사단	1949. 7(제5·6사단) 1950. 3(제18연대)
기계화부대	제105탱크여단, 제17기계화사단	1949. 5. 16(탱크여단) 1950. 5(기계화사단)
철도병부대	제584부대	1950. 7
공군	비행사단	1948. 11
독립부대	독립정찰대대(제303기동정찰대대)	1949. 5. 16
군관학교	제1중앙군관학교, 제2중앙정치학교, 제3군관학교, 해군군관학교	1946. 10. 21 (제1·2·3군관학교) 1949년(해군군관학교)
기술훈련소	포병기술훈련소, 해군기술훈련소, 자동차기술훈련소	1946년(포병훈련소) 1949년 (해군·자동차훈련소)
검찰	인민군 검찰국·검찰소	1950. 4. 30
재판소	인민군 중앙재판소·재판소	1950. 4. 30

6·25전쟁 직전까지 당단체가 조직된 부대와 기관은 중국인민해방군에서 이적된 부대, 탱크여단, 비행사단, 독립정찰대대, 군관학교, 기술훈련소, 검찰과 재판소다. 그렇다면 이 부대와 기관에만 특별하게 당단체가 조직된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지도부가 이 부대·기관에 당단체를 조직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노동당의 영향력과 당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다른 부대가 아닌 이 부대·기관에 특별히 당단체가 조직된 데에는 정치적·군사적 이유가 있다.

첫째, 북한지도부가 비행사단에 당단체를 조직한 것은 비행사단 지휘

³³⁾ 당중앙본부 조직부장 대 서용신, “조직부 지시문, No.00354(1950. 2. 25),”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조직부, 『조직부 지시문철』.

관의 인적 구성 때문이다. 비행사단에는 상당수의 일본군 출신들이 지휘관으로 충원되어 있었다. 비행사단 부사단장 리활(李瀾) 뿐만 아니라 추격기연대장·습격기연대장·교도연대장과, 9명의 대대장 중 6명이 일본군 출신이었다.³⁴⁾ 원래 인민군 문화간부의 역사적 기원인 정치위원제도는 소련 적군에서 1920년에 적군에 가입한 제정러시아 장교의 충성심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도입되었다. 당시 적군에는 약 48,409명의 제정시대 장교들이 적군을 지휘하고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도입된 볼셰비키 혁명체제의 정치위원은 장교들의 충성심과 정직성을 감시하고 전투적 군대에 높은 사기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³⁵⁾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1918년 8월 8일에 소련 군사인민위원회는 적군에 당적 통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러시아 군사위원부로”를 창설하였다.³⁶⁾ 북한지도부가 비행사단에 당단체를 조직한 것은 사단에서 근무하는 일본군 출신들의 사상적 태도를 감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지도부가 중국에서 입북한 부대에 당단체를 조직한 것은 이 부대들이 정규군에 편입된지 얼마 안된 신편부대였기 때문이다. 1950년 4월에 중국에서 입북한 제12사단 문화부사단장 김강은 5월 28일자로 예하부대에 문화훈련국장의 지령을 하달했다. 김강은 이 지령에서 제12사단의 현 상태에 대해 “우리 군부대는 급속한 정규화의 길에 들어서면서 군무자들의 사상적·실천적 혼란을 부분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정규화된 인민군다운 규율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였다.³⁷⁾ 북한

34) 김선호, “한국전쟁 이전 북한 공군 간부의 구성과 정치연합체제의 구축,” 『현대 북한연구』, 제19권 3호 (2016), p. 68.

35) 이창형, 『중국의 軍: 중국군의 정치적 역할』 (서울: 大韓, 2001), pp. 82-83.

36) 이재훈 역, “군사문제에 대한 결정(1919. 3),” 『蘇聯軍 創設期 軍事關係文書選集』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p. 81.

37) 제825군부대 문화부부대장 김강, “지령-제528군부대장 지령0348호 의첩에 관하여 (1950. 5. 28),” 제825군부대, 『命令及指令書綴』 (원산: 제825군부대, 1950), NARA,

지도부의 입장에서 조선인부대는 정규군에 갓 편입된 신편부대로서 아직 정규군의 규율과 사상적·실천적 태도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북한지도부는 규율적·사상적 측면에서 이 부대들을 급속히 기존 인민군부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당단체를 조직한 것이다. 북한지도부가 새로 창설된 제105탱크여단과 독립정찰대대에 당단체를 조직한 이유도 이 부대들이 신편부대였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지도부가 군관학교와 기술훈련소에 당단체를 조직한 것은 인민군의 창설과정에서 군관과 기술병을 양성하는 기관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북한정치세력은 이미 해방 직후부터 군관학교를 중시해 1946년 10월 8일에 평양학원과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에 당조직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노동당은 이 2개 군관학교의 당단체를 중앙당에 직속시켰고, 시·군당위원회와 동급 당부로 취급하였다.³⁸⁾ 노동당은 1946년 10월에 군관학교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당단체를 설치하고 이를 중앙당에 직속시켜 직접 지도하였다. 이것은 군관학교가 창군사업의 핵심주체인 군관을 양성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지도부는 이와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전문적인 기술교육이 필요한 기술병 양성기관에도 당단체를 조직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동당의 당단체가 조직된 부대와 기관은 일본군 출신이 주축인 비행사단, 보병·탱크·정찰부문의 신편부대, 군관학교, 기술훈련소, 검찰·재판소 등이었다. 비행사단은 일본군 출신 군관에 대한 노동당의 감시가 필요했고, 신편부대는 빠른 시일 내에 소련식 정규군으로 재편하기 위해 노동당의 집중적인 지도가 필요했다. 군관학교와 기술훈련소는 군관과 기술병을 양성하는 단위였기 때문에 중앙당

RG 242, SA 2010, Box 5, Item 122.

38) “평양학원 및 보안간부학교내 당조직에 대하여(1946. 10. 8),”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30권, p. 13.

의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했다. 그리고 개전을 앞두고 군대의 정치사건·군사사건을 취급하는 검찰·재판기관에 당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 부대와 기관은 북조선로동당의 입장에서 당적 통제와 지도가 필수적인 단위였다.

Ⅲ. 조선인민군의 정치·군사적 성격과 김일성지도체제의 맹아

1. 소련·중국·북한의 당군관계

북한지도부는 비행사단, 신편부대, 군관학교, 기술훈련소, 검찰·재판기관에만 당단체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부대와 기관에는 당단체를 조직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인민군의 당군관계는 소련군이나 중국군의 당군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북한지도부가 소련·중국과 달리 군대에 일률적으로 당단체를 조직하지 않은 이유는 군대를 당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육성하려고 구상했거나, 군대를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는 북한지도부가 해방 이후에 소련·중국과 다른 혁명론을 견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군대의 성격도 다르게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소련 적군은 처음부터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무기”로 창설되었다. 소련 적군은 1919년 3월 18~23일에 개최된 소련공산당 제8차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철의 규율에 입각한 정규군”으로 재편되었다. 이 대회에서 “적군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무기로서 반드시 계급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즉 적

군은 오직 프롤레타리아 및 이와 유사한 반(半)프롤레타리아 농민 계층만으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³⁹⁾ 전당대회에서 볼셰비키는 “인민의 군대 혹은 전인민의 군대라는 슬로건”이 짜르(Царь)시대의 “크라스노프와 콜차크군 창설의 도구”라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내전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급적 프롤레타리아국가 및 계급적 군대의 창설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⁴⁰⁾

소련 적군의 군대 내 당단체 조직에 대한 원칙은 이보다 앞선 1918년 12월에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적군 창설 초기에 당단체는 각 부대에 독립적으로 조직되었으며, 당단체의 활동은 해당지역 당기관이 관장하였다. 그러나 내전이 격화되자 더 이상 지역 당기관과 부대 군사위원이 군내의 당단체를 지배하거나 감당할 수 없었고, 전투시 군대 내 당단체와 연락이 자주 끊겨 지역 당기관의 지휘권으로부터 벗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따라서 볼셰비키는 전투시에도 당단체를 지도할 수 있는 정치기관으로 부대 내에 “정치국”을 설립하라고 지시하였다. 각 부대의 정치국은 1918년 말까지 모든 전선·군, 다수의 사단에 설립되었다. 또한, 볼셰비키는 군대 내부 정치활동의 지휘를 강화하기 위해 각 중앙군사지휘기관에 산재해 있는 각종 정치기구를 하나로 통합하였다. 당 중앙위원회는 1918년 11월에 “군사인민위원회 군정치국, 최고군사감찰국 정치분과, 공화국 혁명군사소비에트 정치국”을 “전러시아 군사위원부로”로 통합하였다.⁴¹⁾

소련공산당은 1919년 3월에 개최한 제8차 전당대회를 통해 “전러시아

39) 이재훈 역, “당프로그램(1919. 3),” 『蘇聯軍 創設期 軍事關係文書選集』, pp. 57~58; p. 65.

40) 이재훈 역, “군사문제에 대한 결정(1919. 3),” 『蘇聯軍 創設期 軍事關係文書選集』, pp. 80~81.

41) 이재훈, 『蘇聯軍事政策』 (서울: 國防軍史研究所, 1997), pp. 99~101.

군사위원부로”를 해체하고 “공화국 혁명군사소비에트 정치국”을 창설하였다. 정치국장은 혁명군사소비에트 위원인 당중앙위원회 위원이 맡았다.⁴²⁾ 또한, 당중앙위원회는 군대 내 당·정활동의 중심을 각급 부대로 이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919년 10월 14일에 공화국 혁명군사소비에트는 모든 중대급 부대에 “정치지휘관” 직책을 도입하라고 지시하였다. 정치지휘관은 부대 내에서 정치문제에 관한 교양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부대 군사위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⁴³⁾

소련 적군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무기로 창설되었고, 오직 노동자와 농민들로만 조직된 계급적 군대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적군의 모든 부대에는 당단체가 조직되었고, 부대에는 당단체의 지도기관인 정치국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적군의 당단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전러시아 군사위원부와 혁명군사소비에트 정치국이 설립되었다. 게다가 소련공산당은 “인민의 군대”가 짜르시대 군대의 모체라고 비판하였다. 스탈린(И. В. Сталин)은 전위당(前衛黨)론을 통해 “각 군대에는 자신들의 선두에 서서 나가면서 길을 인도해주는 전위대”가 있어야 하며, “그러므로 이 군대들에게 반드시 적절한 지도자집단, 흔히 말하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라고 규정하였다.⁴⁴⁾

인민군의 당군관계는 중국 홍군과도 달랐다. 홍군은 공산당의 선동에 의해 농민의 무장투쟁과 근거지 확보가 결합되어 “노농홍군(勞農紅軍)”으로 창설되었다. 중국의 홍군은 “계급군으로 탄생”하였다. 그러나 홍군은 “초기에는 프롤레타리아군대라기 보다는 농민무장군”이었다. 이에 따

42) 이재훈 역, “군사문제에 대한 결정(1919. 3),” 『蘇聯軍 創設期 軍事關係文書選集』, p. 81.

43) 이재훈, 『蘇聯軍事政策』, p. 133.

44) 스탈린, “프롤레타리아계급과 당,” 강좌편집위원회 엮음, 『마르크시즘 3: 볼셰비키-당과 그 조직』 (서울: 학민사, 1988), p. 163.

라 군에 대한 당의 우위·지배를 관철시키기 위해 일관되게 당과 군의 단결, 군과 인민의 단결을 강조하였다. 중국군은 적을 격멸하는 군사적 임무만이 아니라 대중을 선동·조직·지원하여 혁명정권을 수립하는 정치적 역할, 생산에 종사하는 경제적 역할, 사회활동에 봉사하는 사회적 역할까지 지니고 있었다.⁴⁵⁾

노농홍군으로 출발한 중국공산당군대는 초기부터 군대 내에 당단체를 설치하였다. 중국공산당은 1927년 8월 남창봉기(南昌蜂起) 당시 혁명위원회 아래에 처음으로 총정치부(總政治部)를 설치하였다. 남창봉기 이후 중국공산당군은 재편되어 노농홍군의 지부에 당대표가 임명되었고, 마오쩌둥(毛澤東)이 홍사군(紅四軍)의 당대표로 취임하였다. 중국공산당의 정치체계는 1929년 12월에 중국공산당의 고전회의(古田會議)에서 제도화되었다. 마오쩌둥은 이 회의에서 군사적 관점만을 주장하는 군벌주의를 비판하고 “당은 항상 총구를 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강산(井崗山) 투쟁시기에는 홍사군의 분대단위까지 당지도부가 설치되었고, 당지도부 안에 독립기관으로 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즉, 분대에는 소조, 중대에는 중대지부, 대대에는 대대위원회, 연대에는 연대위원회, 군에는 군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 제도는 대장정(大長征)과 연안(延安)시대에 더욱 발전되어 1937년 8월에 팔로군(八路軍)에 정치부가 창설되었다. 당중앙위원회는 그해 10월에 중앙군사위원회 아래에 총정치부를 재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1945년 10월에는 중국인민해방군 예하에 총정치부를 설치하였고, 류샤오치(劉少奇)를 총정치부장으로 임명하였다.⁴⁶⁾

중국 홍군은 노동자와 농민으로 구성된 노농홍군으로 창설되었고, 계급군대로 탄생하였다. 이에 따라 홍군의 모든 부대에는 당단체가 조직되

45) 이창형, 『중국의 軍: 중국군의 정치적 역할』, pp. 62-63.

46) 위의 책, pp. 63-64.

었고, 각 부대에는 분대단위까지 당지도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홍군의 당단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가 설립되었다.

소련 적군과 중국 홍군은 모두 계급적 군대로 창설되었고, 소련공산당과 중국공산당은 모두 계급적 프롤레타리아국가 수립을 지향하였다. 또한 소련에서 “인민의 군대”는 짜르시대의 유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군대에는 초기부터 공산당의 당단체와 당지도기관이 설치되었고, 중앙에는 당단체를 총괄 지휘하는 정치국과 총정치부가 설립되었다. 적군과 홍군의 당대표와 정치위원·군사위원은 중앙당의 지시에 따라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인민군은 “인민의 군대”로 창설되었고, 북조선로동당은 인민민주주의 국가 수립을 지향하였다. 이에 따라 인민군 내부에는 일반적으로 노동당의 당단체가 설치되지 않았다.

인민군은 당단체 뿐만 아니라 군대를 통제하는 기관과, 군대의 지휘체계도 소련 적군이나 중국 홍군과 차이가 있었다. 소련의 경우, 소련공산당 정치국이 국방업무를 관장하는 내각의 국방위원회를 통제했다. 그리고 군대 내 당단체를 통해 직접적으로 군을 통제했다. 내각 국방위원회는 국방문제의 조정임무를 담당했지만, 실제로는 당 정치국 산하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했다. 소련군에서 군대의 당조직을 지도하는 기관은 소련공산당 정치국이었고, 군대 내 당사업은 당중앙위원회 직속인 소련군 총정치국과 각급 부대 정치부가 담당하였다. 그리고 1918년에는 소련군에 ‘정치위원제도(政治委員制度)’가 도입되었다. 이후 군 지휘관이 공산당원이 아닌 경우, 정치위원은 부대의 군사적 임무에 대해 군 지휘관과 같이 책임졌으며, 군지휘관과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42년 이후부터 정치위원은 군사부문이 아닌 당사업만 전담하였고, 이와 동시에 ‘정치부대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정치부대장은 군사지휘관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이로써 군에 ‘일원적(一元的) 지휘체계’가 정착되었다.⁴⁷⁾ 즉, 소련 적군은 이원적(二元的) 지휘체계였다가 일원적 지휘체제로 변화하였다.

중국의 경우, 국방업무와 관련해 당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기구인 인민혁명군사위원회가 병존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국방권한을 가진 기구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였다. 인민혁명군사위원회는 주석이 모든 중요 결정을 내렸는데, 인민혁명군사위원회 주석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중국군에서 군대의 당조직을 지도하는 기관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였고, 군대의 당사업은 당중앙위원회 직속인 중국군 총정치부가 담당하였다. 군대 내 당사업의 핵심적 역할은 소련과 마찬가지로 ‘정치위원’이 담당했다. 중국군의 당단체는 1927년에 ‘당대표’를 파견하면서 시작되었고, 당대표는 1929년에 ‘정치위원’으로 변경되었다. 중국군에서 당위원회제도가 도입된 것은 1947년이였다.⁴⁸⁾ 중국 홍군은 기본적으로 군사지휘관과 정치위원으로 이원화된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소련 적군과 중국 홍군은 소련공산당 정치국과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통제하였다. 또한 군대의 당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소련 적군에는 소련군 총정치국이 설치되었고, 중국 홍군에는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가 설치되었다. 이에 비해 북조선로동당에는 인민군을 통제하거나 군사부문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가 없었다. 인민군은 정권기관인 민족보위성에서 관할하였다. 인민군의 정치사상사업도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지도한 것이 아니라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이 지도하였다. 또한, 인민군에는 총정치국처럼 군대의 당사업을 총괄하는 중앙지도기관이 없었다.

그런데 인민군의 지휘체계는 중국 홍군의 지휘체계 보다 소련 적군의 지휘체계와 유사했다. 중국 홍군은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를 원칙으로

47) 정성임, “조선인민군: 위상·편제·역할,”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pp. 471~472.

48) 이창형, 『중국의 軍: 중국군의 정치적 역할』, pp. 62~64.

했기 때문에 창설 이후 계속해서 이원적 지휘체계를 유지했다. 소련 적군도 창설 당시 이원적 지휘체계였다. 그러나 소련 적군의 지휘체계는 그 후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적군은 1940년 8월 군사위원제도를 폐지하고 일원적 지휘체계를 도입하였다. 그러다가 1941년 6월에 독소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군사위원제도를 채택하고 이원적 지휘체계를 강화하였다. 적군은 1942년 10월에 공산당의 군대 내부기반이 확고해졌다는 판단 하에 군사위원제도를 폐지하고 “완전한 일원적 지휘제와 정치부문 보좌관(부지휘관)제도를 재도입”하였다.⁴⁹⁾

인민군의 문화간부제도는 1942년 10월에 적군이 다시 채택한 ‘정치부 지휘관제도(政治副指揮官制度)’를 개칭해 도입한 것이며, 이것은 소련 적군의 일원적 지휘체계와 유사하다. 인민군은 이 일원적 지휘체계를 개진 후 “군사단일제”라고 명명하였다.⁵⁰⁾ 군사단일제는 군사지휘관과 문화간부가 부대를 함께 지휘하는 이원적 지휘체계가 아니라 군사지휘관 하에서 문화간부가 활동하는 일원적 지휘체계였다. 인민군에 임명된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 출신 간부들은 해방 전에 중국공산당군대에서 활동하면서 이원적 지휘체계에 익숙한 인물이었다. 예를 들어,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2군에는 군사지휘관인 군장(軍長)과 정치지휘관인 정치위원이 각각 배치되었고, 정치사업을 담당하는 정치부주임이 별도로 임명되었다.⁵¹⁾ 사단(師)과 단(團)에도 정치위원이 임명되었으며, 중대에는 중대정치지도원이 임명되었다.⁵²⁾ 그러나 이들은 해방 이후에 소련 적군이

49) 이재훈 역, “적군 및 해군 내 일원적 지휘제의 강화에 대하여(1940. 8. 12),” 『蘇聯軍 創設期 軍事關係文書選集』, p. 316; 이재훈, 『蘇聯軍事政策』, pp. 298~300.

50) 김재욱, 『군사단일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군대내 로동당 단체들의 제 과업』 (평양: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1951. 9), p. 1.

51) 霍遼原 編著, 『東北抗日聯軍 第二軍』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5), p. 127.

52) 김일·오진우·림춘추, 『항일무장투쟁경험』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133~134.

채택한 정치부지휘관제도와 일원적 지휘체계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북한정치세력이 인민군 지휘체계의 모델을 소련 적군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소련 적군이 일원적 지휘체계에서 이원적 지휘체계로 변화한 시점이다. 소련 적군이 군사위원제도와 이원적 지휘체계를 도입한 시기는 내전시기와 독소전쟁시기이며, 정치부지휘관제도와 일원적 지휘체계를 도입한 시기는 내전이 종식된 이후와 독소전쟁에서 전세를 역전한 이후였다.⁵³⁾ 소련 적군이 내전시기와 독소전쟁시기에 이원적 지휘체계를 도입한 이유는 군대 내부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적군이 독소전쟁시기에 이원적 지휘체계를 다시 도입한 이유는 검증받지 못한 장교와 지휘관이 급격히 증가하여 계급적 순수성이 저하되었고, 그 결과 군 통솔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었다.⁵⁴⁾ 소련 적군과 달리 중국 홍군이 계속해서 이원적 지휘체계를 유지한 이유는 국공내전의 발발, 제1차 국공합작, 내전의 재개, 만주사변, 중일전쟁, 제2차 국공합작 등 중국혁명에 대한 대내외적 위협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정치세력이 인민군에 문화간부제도와 일원적 지휘체계를 채택한 이유는 해방 이후 한반도의 정치상황이 내전이나 독소전쟁처럼 혁명의 추진이나 정권의 존립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인민군이 통일전선의 군대로 규정됨에 따라 군대를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노동당의 군사담당부서나 군대의 노동당 당단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인민군의 군사단일제와 당군관계는

⁵³⁾ 소련 적군은 1942년 8월부터 시작된 스탈린그라드전투에서 고전하다가 9월부터 전세를 역전했다. 그리고 11월 19일에 총반격을 개시했다. 드리트리 볼코고노프 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스탈린』 (서울: 세경사, 1993), pp. 218~221.

⁵⁴⁾ 이재훈, 『蘇聯軍事政策』, pp. 298~299.

6·25전쟁 발발 이후에 변화하게 되는데, 그 변화요인도 혁명의 추진이나 정권의 존립과 관련되어 있다.

2. 통일전선의 군대와 김일성지도체제의 맹아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동당과 인민군은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것은 인민군이 정치연합적으로 구성되었고, 군대 내부에 일본군 출신·만주군 출신·민주당원·청우당원·무소속 등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인민군의 당군관계가 적군이나 홍군보다 약했던 것은 무엇보다 북한정치세력이 추구한 인민민주주의혁명이 소비에트국가의 프롤레타리아혁명과 정치적 형태가 달랐기 때문이다. 물론 후기 인민민주주의론에 따르면, 인민민주주의국가도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다. 그러나 인민민주주의국가의 프롤레타리아독재는 “로동계급의 헤게모니 하에 로동계급과 근로농민의 동맹”을 기초로 성립되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인민민주주의국가의 또다른 특징은 “다당성(多黨性)”이다. 여러 당이 있는 가운데 공산당(노동당)의 지도적 역할은 인민민주주의전선의 활동에 의거해 보장되었다.⁵⁵⁾ 따라서 인민민주주의혁명 단계에서는 노동계급의 독재 보다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농민의 동맹이 중요했고, 여러 정당이 존재하는 가운데 노동당의 지도적 역할은 통일전선에 의해 완성될 수 있었다. 북한정치세력은 이 같은 혁명론에 따라 인민군에 노동당의 당단체를 조직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한 국가건설의 최종 목표가 인민민주주의국가의 수립이 아니라 소비에트국가의 수립이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혁명론은 이미 1945년 10월 10~13일에 북조선분국

55) 브·쓰·마니쑤쓰끼,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계급적 본질,” 『근로자』, 1949년 22호 (평양: 로동당출판사, 1949. 11. 30), pp. 60~61; pp. 69~71.

이 설립될 당시부터 제시되었다. 대표적으로, 김일성은 서북5도 당책임자 급 열성자대회에서 정권형태에 대해 “현 계단에 있어서는 자본민주주의정권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첫째의 임무를 마치고 우리는 둘째의 임무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⁶⁾ 이 정치노선은 북조선분국에서 정식으로 통과되었다. 여기서 자본민주주의정권은 부르주아민주주의정권을 뜻하며, 첫째 임무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둘째 임무는 사회주의혁명을 가리킨다. 즉, 해방 이후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거쳐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하고자 했다. 이들이 추구한 인민민주주의국가는 소비에트 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였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론은 창군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해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민족 전체의 통일전선을 추구하였다. 인민군은 이 같은 통일전선론과 혁명론에 따라 당의 군대나 계급의 군대가 아닌 통일전선의 군대이자 인민의 군대로 창설된 것이다. 그러나 통일전선의 군대이자 인민의 군대는 제1단계 혁명이 완수되고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한다면 당의 군대이자 계급의 군대로 변화될 예정이었다. 그러므로 통일전선의 군대는 제1단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통일전선군대의 과도기적 성격은 혁명정세의 변화와 사회주의혁명의 달성 정도에 따라 변화할 예정이었다.

인민군의 당군관계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김일성 중심의 지도체제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군대에 대한 당적 통제의 상대적 자율성은 인민군이 노동당 내부의 파벌주의로부터

56) 朝鮮産業勞動調査所 編, “五道黨員及熱誠者聯合大會會議錄-黨組織問題報告,” 『붉은 路線』, 民衆新聞社出版部, 1946, 김남식 외 엮음, 『韓國現代史資料叢書』 11 (서울: 돌베개, 1986), p. 465.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다른 부문보다 먼저 군대에 김일성의 지도체제가 구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인민군은 1946년 7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 시기부터 당이나 정권기관보다 앞서 김일성의 영도사상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정통성을 부여하였다.⁵⁷⁾ 북한의 군대는 이를 통해 동북항일연군의 유일적 “혁명전통”을 천명함으로써 김일성의 지도체제를 선도하였다.⁵⁸⁾ 보안국에서 일찍부터 김일성의 영도사상이 공식화된 것은 동북항일연군 출신 최용건이 보안국장을 맡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최용건이 조선민주당 당수였다는 사실이다. 그는 1945년 11월 북조선행정10국 시기부터 군사부문의 최고책임자였다. 그는 민주당 당수임에도 불구하고 항일연군 출신으로서 김일과 함께 인민군에 김일성의 영도사상을 구축하였다. 이것은 인민군에 구축된 김일성 영도사상이 노동당의 정책에 따라 구축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항일연군 출신들의 정치·군사적 의도에 따라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뜻한다. 인민군은 다른 기관·단체에 비해 항일연군 출신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반영되었고, 이로 인해 김일성의 영도사상과 ‘혁명전통’도 일찍부터 제기되고 구축되었다.

둘째, 동북항일연군 출신들은 창군과정동안 계속해서 총사령관과 문화부문 부사령관을 전담함으로써 인민군에 김일성의 지도체제를 구축하였다. 인민군 창설과정에서 총사령관과 문화부문 부사령관은 계속해서 최용건과 김일이 전담했다. 민족보위상 최용건은 대대부·집단군총사령부·인민군총사령부 총사령관을 맡아왔고, 문화부상 김일은 대대부·집

57) 김선호, “해방직후 북한 보안국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현실』, 제86호 (2012), pp. 303-305.

58) “혁명전통”은 지도자가 개척하고 영도한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건』 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948.

단군총사령부·인민군총사령부 문화부사령관을 맡아왔다. 두 인물은 창군과정에서 인민군의 지휘권과 정치사상사업을 독점함으로써 군대에 김일성의 지도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물론 인민군의 다른 부문에는 의용군 출신과 고려인들도 진출했으나, 이들은 한 번도 총사령관과 문화부문 부사령관을 맡지 못했다.

또한, 병중간부와 문화간부를 양성하는 조선인민군 제1중앙군관학교(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의 후신)와 제2중앙정치학교(평양학원 정치과의 후신)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책임지는 문화부교장과 정치부교장은 1947년 이후부터 동북항일연군 출신 김경석(金京石)과 전창철(全昌哲)이 맡았다.⁵⁹⁾ 따라서 1947년 이후에 군관학교를 졸업한 병중간부와 문화간부들은 모두 항일연군 출신 문화부교장·정치부교장의 정치사상적 지도 아래 성장한 인물들이었다. 인민군은 이미 보안국 시기부터 보안무력에 김일성의 영도사상을 도입한 바 있다. 따라서 군관학교를 졸업한 군사간부들은 김일성의 영도사상을 체화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6·25전쟁 직전까지 인민군에 하급 군사간부로 배치되었지만, 향후 중급·상급 군사간부로 진출할 수 있는 간부원천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중급·상급 군사간부로 진급할 경우, 김일성의 영도사상은 인민군에서 더욱 견고히 구축될 예정이었다.

6·25전쟁 직전 인민군의 당군관계가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인민군이 당의 군대로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정치사상적으로 점차 김일성의 군대로 변화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북한

⁵⁹⁾ 김경석은 해방 이후에 노동당 남포시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 문화부교장으로 임명되었다. 전창철은 1946년에 평양학원 정치부교장으로 임명되었고, 1949년 8월에 만경대혁명학원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평양학원, 『새三千里』, 제2·3월호 (평양: 평양학원편집부, 1947. 3. 26), pp. 185~186; 최봉식, 『대성산혁명렬사릉』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pp. 30~31; pp. 71~72.

정치세력은 보안국·보안간부훈련대대부·집단군총사령부시기까지 김일성을 군대의 ‘영도자’라고 표현하고, 군대는 김일성의 영도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규군이 창설되자 김일성의 항일유격부대에 혁명의 정통성을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총참모장 강건은 노동당의 이론잡지 『근로자』에 투고한 논설에서 “조선인민군은 명실 공히 김일성장군 항일인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산아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또한 그는 인민군이 “김일성 장군 항일유격대에서 그와 함께 일생을 혁명적 유격투쟁에 바쳐온 진정한 조선의 애국자 혁명가들을 골간으로 하여 창건되었다”고 공표하였다.⁶⁰⁾ 이 같은 김일성과 동북항일연군 중심의 창군이념은 6·25전쟁 직전까지 다른 정치세력으로부터 부정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⁶¹⁾

이것은 단순히 항일운동의 정통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 항일운동과 인민군의 정통성을 점차 김일성 개인이 독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해방 이후 북한정치세력은 인민민주주의국가 건설을 위해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민족 전체의 통일전선을 주장했지만, 인민군의 통일전선은 노동당의 독점적 주도권 하에 구축되었고, 인민군의 정통성은 노동당이 아니라 김일성이 독점하였다. 따라서 인민군 내부에서 김일성의 영도사상이 더욱 견고히 구축된다면, 인민군은 완전히 김일성의 군대, 즉 김일성을 국가체제의 유일한 지도자로 설정하고 이를 보위하는 군대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았다.

60) 강건, “김일성 장군 항일유격부대는 조선인민군의 전투적 골간이다,” 『근로자』, 1950년 2호 (평양: 로동신문사, 1950.1.31), pp. 23~24.

61)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pp. 262~270.

IV. 맺음말

북한정치세력은 해방 직후에 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해 소비에트 국가가 아니라 인민공화국 건설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를 제외한 민족 전체의 통일전선을 추구했다. 노동당은 통일전선을 관철하여 인민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군대의 당군화를 추진하지 않고 전체 인민의 군대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대신해 노동당은 군관학교·비행사단·신편부대·검찰기관·재판기관에 당단체를 조직함으로써 군대에 대한 당적 통제와 지도를 관철시켰다.

6·25전쟁 직전 북한의 당군관계는 사회주의국가 건설과정에서 김일성의 지도체제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군대에 대한 당적 통제의 상대적 자율성은 인민군이 노동당 내부의 파벌주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다른 부문보다 먼저 군대에 김일성의 지도체제가 구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인민군은 다른 기관·단체에 비해 항일연군 출신의 정치·군사적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었고, 이로 인해 김일성의 영도사상과 ‘혁명전통’도 일찍부터 제기되고 구축되었다. 동북항일연군 출신은 창군과정에서 인민군의 지휘권과 정치사상사업을 독점함으로써 노동당보다 앞서 군대에 김일성의 지도체제를 구축했다.

조선인민군은 전체 한반도 차원에서 조직된 최초의 기구였고, 향후 한반도에 수립될 단일정부의 유일군(唯一軍)이었다.⁶²⁾ 이 유일군의 역사적

⁶²⁾ 1948년 2월 8일에 인민군이 창설될 당시, 북조선로동당·북조선인민위원회·북조선농민동맹 등 모든 조직의 명칭에는 ‘북(北)’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었다. 그러나 군대의 명칭만 ‘북조선인민군’이 아니라 유일하게 ‘조선인민군’이라고 명명되었다. 즉 조선인민군은 북한지역에 한정해 창설된 군대가 아니라, 전체 한반도 차원에서 단일정부의 유일군으로 창설된 것이다.

기원과 정통성은 전체 항일운동이 아니라 김일성의 항일운동과 빨치산 부대에 부여되었다. 그리고 인민군의 지휘권과 정치사상사업을 독점한 항일연군 출신들은 노동당 보다 인민군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인민군에서 항일연군 출신들의 우월적 지위와 김일성 중심의 창군 이념은 향후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김일성지도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맹아였다.

조선로동당이 1990년대 중반에 대내외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선군 정치를 추구한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국가 건설에서 김일성의 영도사상과 혁명전통이 구축되는 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6·25전쟁 직전까지 노동당 내부에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존하고 있었고, 김일성의 영도사상과 혁명전통이 확고히 자리잡지 못했다. 이와 달리 인민군에서는 김일성의 영도사상과 혁명전통이 공식적이며 유일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⁶³⁾ 조선로동당은 인민군에 구축된 김일성의 영도사상과 혁명전통을 당과 정권기관에 관철하는 방식으로 김일성지도체제를 구축하였다. 결국 조선로동당이 선군정치를 추구한 것은 인민군이 수령의 영도사상과 혁명전통의 기원과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 접수: 2018년 11월 12일 / 심사: 2019년 6월 3일 / 게재 확정: 2019년 6월 3일

⁶³⁾ 노동당의 세력분포와 인민군의 혁명전통은 다음 연구를 참고 바람.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pp. 218~221; pp. 262~270.

【참고문헌】

자료

- 강 건. “김일성 장군 항일유격부대는 조선인민군의 전투적 골간이다.” 『근로자』, 1950년 2호. 평양: 로동신문사, 1950. 1. 31.
- 강좌편집위원회 엮음. 『마르크스изм 3: 볼셰비키-당과 그 조직』. 서울: 학민사, 1988.
- 霍遼原 編著. 『東北抗日聯軍 第二軍』.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5.
-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30·42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8·2004.
- 金日成 將軍 述. 『民族大同團結에 對하여』. 청진: 朝鮮共產黨淸津市委員會, 1946. 3, NARA, RG 242, SA 2010, Box 5, Item 141.
- 김기복. 『입당청원서』. 평양: 제866군부대, 1949. 12. 6, NARA, SA 2009, Box 2, Item 158.
- 김남식 외 엮음. 『韓國現代史資料叢書』 11. 서울: 돌베개, 1986.
- 김봉호. 『위대한 선군시대』. 평양: 평양출판사, 2004.
- 김 일·오진우·림춘추. 『항일무장투쟁경험』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김재욱. 『군사단일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군대내 로동당 단체들의 제 과업』. 평양: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1951. 9.
- 민족보위상 최용건, 총참모장 강건. “명령-중공당원 전당을 위한 당문건 작성 등기원 동원보장에 대하여(1950. 5. 17).” 고려서림 편. 『北韓解放直後極秘資料』 3. 서울: 고려서림, 1998.
-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편. 『軍衆工作』. 평양: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50. 8. 5, NARA, RG 242, SA 2009, Box 4, Item 149.
-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조직부.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조직부 지시문철(自一九四六.九)』. 평양: 북조선로동당, 1950, NARA, RG 242, ATIS Document, No. 201205.
- 브·쓰·마니콥스끼.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계급적 본질.” 『근로자』, 1949년 22호. 평양: 로동당출판사, 1949. 11. 30.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4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1.
-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서동명.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위업승리의 위력한 담보』.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

- 사, 2002.
- 이재훈 역. 『蘇聯軍 創設期 軍事關係文書選集』.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 정정환. 『자서전』. 평양: 제17포병련대, 1950. 2. 11, NARA, RG 242, SA 2009, Box 10, Item 21.14.
- 제1중대 문화부중대장 김철산. 『로동당원명단』. 미상: 제1중대, 1950. 8. 6,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9.2.
- 제825군부대 문화부 부대장 김강. “지령-련대 및 독립대대 당서기 선정에 대하여 (1950. 5. 27).” 고려서림 편. 『北韓解放直後極秘資料』 3. 서울: 고려서림, 1998.
- 제825군부대 문화부부대장 김강. “지령-제528군부대장 지령0348호 의첩에 관하여 (1950. 5. 28).” 『命令及指令書綴』. 원산: 제825군부대, 1950, NARA, RG 242, SA 2010, Box 5, Item 122.
- 제866군부대 문화부련대장 정중우, “군관상학조 명단 제출에 대하여(1950.1.7).” 조선인민군 제861군부대 문화부. 『잡서류철』. 평양: 제861군부대, 1950. 5, NARA, RG 242, SA 2010, Box 미상, Item 74.
-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 최봉식. 『대성산혁명렬사릉』.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 평양학원. 『새三千里』, 제2·3월호. 평양: 평양학원편집부, 1947. 3. 26.

연구성과

- 고재홍. “6·25전쟁기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 『軍史』, 제53호 (2004), pp. 143~180.
- 김광운. “해방 직후 북한에서의 통일전선.” 『한국사학보』, 제11호 (2001), pp. 319~348.
-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6권 2호 (2002), pp. 349~365.
- 김보미. “북한의 당군관계, 그 결과.” 『현대북한연구』, 제20권 3호 (2017), pp. 99~137.
- 김선호. “한국전쟁 직전 조선인민군의 인적 구성과 북한의 통일전선 재편.” 『역사문제연구』, 제41호 (2019.4), pp. 365~373.
- _____. “한국전쟁 이전 북한 공군 간부의 구성과 정치연합체제의 구축.” 『현대북

- 한연구, 제19권 3호 (2016), pp. 52~93.
- _____. “해방직후 북한 보안국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현실』, 제86호 (2012), pp. 293~324.
- 김창순 편. 『北韓軍事論』. 서울: 북한연구소, 1978.
- 드리트리 볼코고노프 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스탈린』. 서울: 세경사, 1993.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 서울: 나남, 1996.
- 백학순. 『북한정치에서의 군대: 성격·위상·역할』. 성남: 세종연구소, 2011.
-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서울: 선인, 2005.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7.
- 이대근. 『북한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3.
- 이신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설치 배경에 대한 연구.” 『軍史』, 제83호 (2012), pp. 35~66.
- 이재훈. 『蘇聯軍事政策』. 서울: 國防軍史研究所, 1997.
- 이창형. 『중국의 軍: 중국군의 정치적 역할』. 서울: 大韓, 2001.
- 장성진. “북한군 창설기 당-군관계의 형성과 의미.” 『현대북한연구』, 제15권 3호 (2012), pp. 146~202.
- 장준익. 『北韓人民軍隊史』. 서울: 瑞文堂, 1991.
- 정성장.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과 권력승계 문제』. 성남: 세종연구소, 2013.
- 佐佐木春隆. 『韓國戰秘史』 中卷. 서울: 兵學社, 1977.

The Formation of Party-Military Relations in North Korea and the Germination of the Kim, Il-Sung's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 Focusing on the Party-Military Relations in North Korea before the Korean War

Kim, Seon-Ho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e North Korean political forces designed not just the Soviet state but the People's Democracy after liberation, and pursued the unification front of all classes for this purpose.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NKWP) created the entire people's army without pursuing the party's army to carry out the unified front. Instead, NKWP organized its party in the military school and the new unit, which led to the party's control and guidance.

Before the Korean War, North Korea's Party-Military Relations with the ruling party had a decisive influence on Kim Il-Sung's leadership system during the socialist construction process. In the Korean People's Army(KPA), the spiritual ideology of Kim Il-Sung was established earlier than the party and government agencies. The historical origin and legitimacy of the KPA was given to Kim Il-Sung's anti-Japanese movement, not the entire anti-Japanese movement. The founding Kim Il-Sung's leader ideology centered on Kim Il-Sung's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in the course of North Korea's socialist construction.

Until the Korean War, Kim Il-Sung's leader ideology was not firmly established in the Korean Workers' Party(KWP). On the other hand, in the KPA, Kim Il-Sung's leader ideology was the official and unique position. The KWP established a monolithic leadership in which Kim Il-Sung's leader ideology established in the KPA was passed on to the party and government agencies. Eventually, North Korea pursued Military-First Politics because the KPA was the source of Kim Il-Sung's leader ideology and revolutionary tradition.

Key words: Korean People's Army, Korean Workers' Party,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United Front, Military Monolithic System, Political Officer, Revolutionary Tradition, Leader Ideology, Military First Policy

김선호(Kim, Seon-Ho)

경희대학교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연구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주제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정과 동아시아의 냉전체제이다. 최근 연구로는 “한국전쟁기 조선인민군의 재편과 북한·중국·소련의 이견과 조율”(2018), “북한의 당군관계 출현과 통일전선의 군대”(2018), 『분단시대 월남민의 사회사』(공저, 2019) 등이 있다.